

민주, 잇단 악재에 위기감 고조

금감원장 사퇴·당원 댓글 조작
야권, 특검 추진 등 총공세
지방선거 여론 향방 예의주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6·13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터진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와 민주당원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태' 등 잇단 악재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 일각에서는 현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하면서 지방선거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선거 대책 회의 등을 통해 전략 마련에 고심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두 사안이 정기간 영향을 끼쳐 선거 판세를 뒤엎을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기식·김경수 문제는 당 지지율에 반영은 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정치 구도나 역학관계를 바꾸게 할만한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드루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추진에 있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확고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모양새여서 이 사안이 현재 진행 중인 당내 경선은 물론 지방선거 본선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악재가 없어도 선거 막바지로 가면 여야 간 50대 50 구도로 바뀔다는 계산



“관심은 이제 그만”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외유성 해외출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기식 금감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의 김 원장. /연합뉴스

거의 일반적 경향이었고 공천과 당내 경선 곳곳에서 파열음까지 일고 있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상승 흐름을 보이는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사안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

티가 CBS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성인 2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 한국당의 지지율은 21.9%로 4주 연속 올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광주서갑 박혜자 전략공천 방침

오늘 최고위서 결정...여성공천 명분 일부 반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이 당 일부의 반발에도 광주 서구갑 재선거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17일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추 대표가 일부 당 고위 관계자와 회의에서 광주 서구갑 전략공천 방침을 밝히고 이르면 18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 대표는 여성공천을 위해 박혜자 전 의원을 전략공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회의에 참가한 일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전략공천의 부작용과 실패 사례, 당 전체 선거에 미치는 부정적 요소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추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심

사를 완료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총 7개 지역을 심사한 가운데 단수 지역은 2곳, 경선 지역은 4곳, 광주 서구갑은 전략적 판단을 위해 전략공천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암·무안·신안은 백재욱·서삼석 후보자 간 경선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동안 상당수 최고위원과 고위 당직자들이 광주 서구갑의 전략공천 반대 뜻을 밝힌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이 최근 '김기식 사퇴'와 '드루킹 파문'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어서 전체 지방선거에 파문이 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전략공천 위 회의는 물론 최고위 회의에서도 추 대표의 방침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추 대표의 전략공천 강행 방침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멀어지는 국회 정상화

한국당, 무기한 천막농성

야3당 靑 인사라인 쇄신 요구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요원해지고 있다.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과거 '드루킹' 접촉 사실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지만, 여야간 공방이 가라앉기는커녕 더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에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김기식 원장 및 김경수 의원에 대한 이른바 'KS(김기식 원장 및 김경수 의원의 이름 영문 이니셜) 특검'을 요구하며 대야 투쟁강도를 끌어올렸다.

민주평화당도 김 원장 문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인사라인 쇄신을 요구했다. 또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 수사를 촉구하면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6·13 선거 현장

구청장·시장·군수·시의원

양혜령 “문화전당 활성화 대책 마련할 것”



양혜령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상인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아시아문화전당 추진 당시에는 1년 관람객을 360여만명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200여만명 정도로만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 정도의 관람객 수로는 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인한 동구 도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적이 없고, 오히려 주변 상인과 주민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여론이 높다”면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들이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은방,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록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이 17일 의정직을 사임하고, 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광주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 후보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지난 12년간의 소중한 의정활동 경험은 북구에 환원해 북구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구민께 다가서겠다”면서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천하는 지방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구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토대로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5대 북구의원과 재선 시의원을 지냈고, 전국군행법전협의회 의장과 전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장성수 “광산 신도심권에 전통사립고 유치”



장성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수원지구 등 신도심권에 전통 사립고등학교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광산구 일반계 고등학교는 10개교로, 매년 1400여 명의 일반계고 지원자가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고 있다”며 “광산구는 인구 대비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립고 수가 적고, 신도심권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택지 개발, 그린벨트 내 재개발과 연계해 전통사립고교를 유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우선적으로 확보 가능한 부지를 찾고, 이설을 희망하는 일반계 사립고교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성 ‘청년수당 월 20만원 지급’ 공약



김준성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예비후보는 17일 ‘청년수당 월 20만원 지급’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매년 영광군 인구가 1000여명씩 줄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년은 영광의 소중한 자산이자 희망”이라며 “수당지급은 청년들에게 미래 설계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는 배려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무분별한 소비를 막기 위해 현금 대신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문인 “여성 귀가 안심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귀가를 돕는 시스템의 필요성 높이고 있다”며 “여성귀가안심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동별 자생단체 등 민간영역을 활용해 여성귀가안심순찰단을 구성하고, 경찰 및 자율방범대의 협조체제를 만들겠다”며 “북구는 주부순찰단이라는 제도가 있어 잘 작동한다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골목이 많은 구도심 주택지와 원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인 셉테드 디자인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인·물적자원 활용 공유도시 추진”



김형수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청장 예비후보는 17일 “복지, 일자리 등 주민들의 수요는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으로 추가 지원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 지역사회, 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소통과 협업을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공유도시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자원 절약과 환경문제 해결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공유’의 중요성이 점차 늘고 있다”며 “공유자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데이터 확보, 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공유서비스사업 확대, 재능 나눔 소지자 발굴 및 커뮤니티 연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역별 나눔터 설치와 참여기업 지원 등 제도적 정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인규 ‘온가족이 행복한 나주’ 정책 발표



강인규 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가 17일 ‘온가족이 행복한 나주’ 정책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0가지 세부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친화도시 조성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개선 ▲국제수준의 안전도시 나주 조성 ▲시립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40% 확대 ▲건강가정 지원사업 확대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그림실 사업 확대 ▲나주교육지원센터 설립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직업 체험스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복지·안전·보육·건강·교육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나주가 시민체감형 휴먼시티로 발돋움할 것이다”고 밝혔다.

임미란, 광주시의원 남구3선거구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임미란 부위원장 이 17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시의원 남구3선거구(봉선2·효덕·송암·대촌동)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임 예비후보는 “‘사람과 자연이 살아 숨 쉬는 공존하는 광주’ ‘사람 사는 건강한 광주’를 디자인하는 것을 의정 활동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광주시 통합 재난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복지 허브사업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 마을교육공동체 구현, 푸른길 주변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관광길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재난안전관리 분야 강화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